시작하자! 10년 투자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식 편입비가 30% 이하인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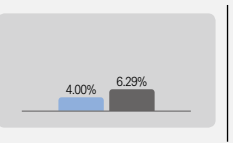
☆ 기업의 본질적 내재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 저위험 적정 수익을 추구합니다.

최초 설정일	2006.04.18	운용 기간	2017.04.18~2017.07.17

최근 3개월 수익률	최근 1년 수익률	최근 5년 수익률	2016년 수익률
2.93%	4.51%	31.35%	0.70%
(비교지수 4.02%)	(비교지수 7.87%)	(비교지수 17.54%)	(비교지수 3.43%)

연초 이후 수익률	총자산
4.00%	326,001 백만 원
(비교지수 6.29%)	(전분기 대비 10.13% 감소)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

1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는 **최근 결산일(2017년 4월 17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 환산 표준편차가 2.83%**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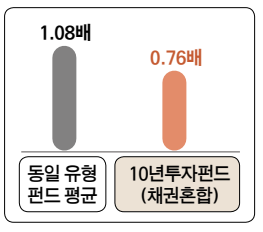
2 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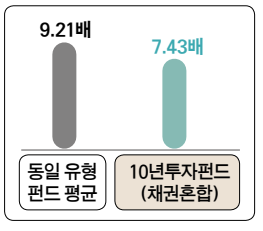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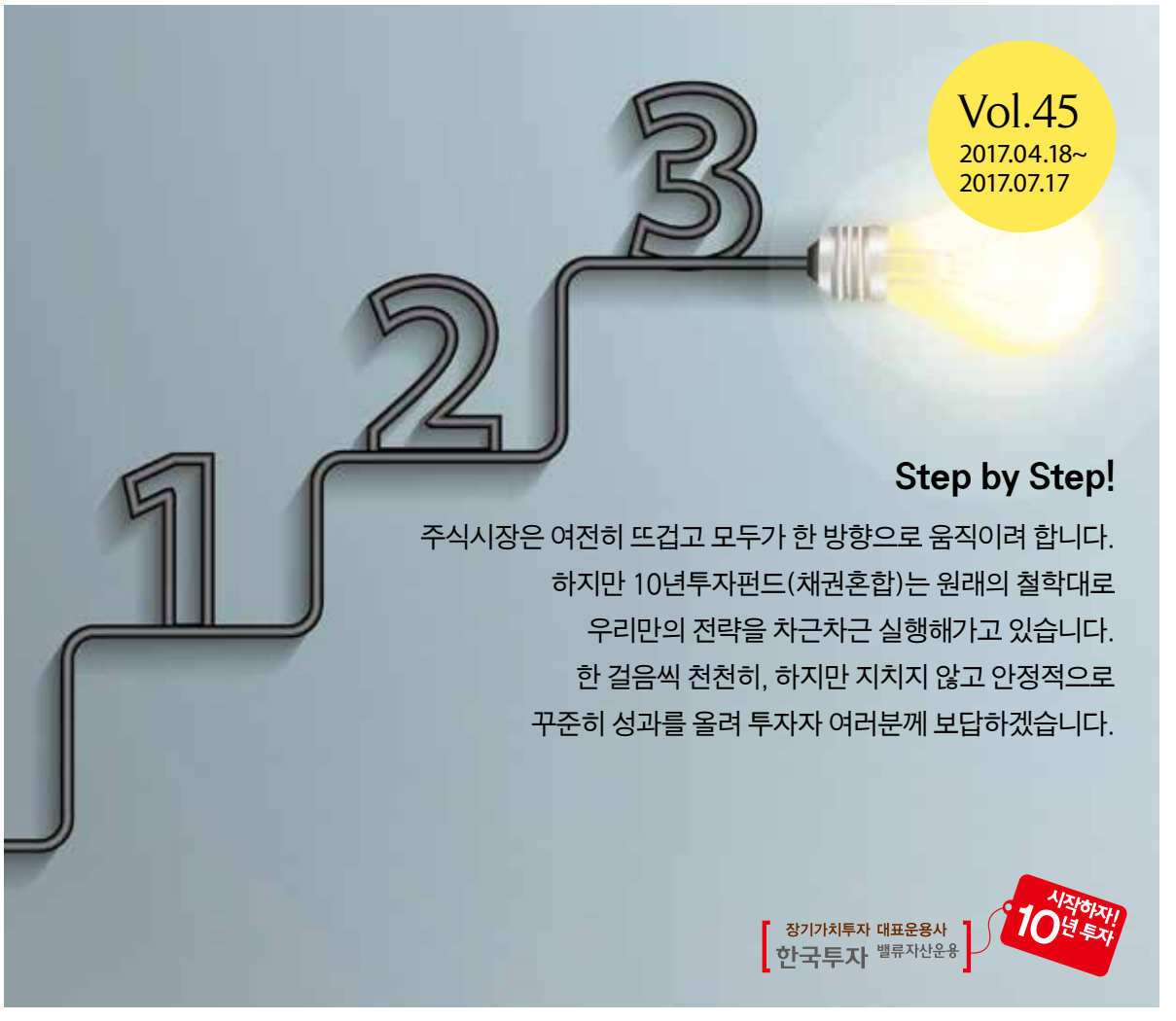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6~2017.05)
※ **동일유형펀드** 채권혼합 공모펀드(주식 등 위험 자산 편입비를 평균 15~40%로 운용하는 국내 혼합형 펀드)



이채원 CIO와 이승혁 자산운용3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흔들리지 않는 가치투자로 안정적 수익 추구할 것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운용 기간(2017.04.18~2017.07.17) 동안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2.93%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4.02%의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IT업종 상승세,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1분기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대형 경기 민감주에 집중되었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2분기에는 새 정부 출범 후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 확대되어 전형적인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상장사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산되면서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가 보유한 지주사 주식과 배당 주식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우려가 현실화된 데다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에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면서 자동차업종과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어 비교지수 대비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업황이 가장 좋은 국면에 있는 실적 성장 대형주로 판단해 가치투자 관점에서 편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기준 금리 인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채권시장 약세

다음으로 이번 분기 채권시장은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국내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직전 분기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분기 초인 4월에는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습과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탓에 글로벌 금리는 하락했지만 국내 금리는 북한 리스크에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5월 초에는 국내 신정부 출범으로 추경과 안심전환대출 등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채권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월 중순 이후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산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해 월초의 금리 상승분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6월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부임 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탓에 단기 금리 위주로 급등했습니다.

소외된 종목에 투자, 중·장기 복리 수익률 추구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시장의 쏠림에 편승하기보다는 소외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철학을 고수함으로써 최대한 잃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정 산업의 압축 상승 이후에는 소외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기업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현재 인기 있는 산업과 기업을 추종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소외되고 투자자들에게 잊힌 기업을 Bottom-up 리서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발굴하거나 비중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재 KOSPI는 2,400포인트를 돌파하여 업종 대부분 연중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기에 지금껏 상승한 주가에 걸맞은 실적 성장이 요망되기에 보유 종목 하나하나 처음 편입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여 수익률 누수 현상을 막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검토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금리 박스권 움직임 속 안정적 이자 수익 추구

다음 분기 채권 금리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과 ECB의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수출을 비롯한 국내 지표 호조에도 제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언급했음에도 여전히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경기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분기 채권 금리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시장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저평가된 특수채와 회사채를 편입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률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IO **이채원**
자산운용3본부장 **이승혁**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신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펀드 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채권혼합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KDB생명
기타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56288
클래스 A	AE273
클래스 C	AE245
클래스 C-P	AH290
클래스 S	AP748
클래스 C-W	AR355
클래스 C-E	AS482
클래스 A-E	BG296
클래스 C-Pe	BG30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KEB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 **공지 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 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4.17)	금분기 말(2017.07.17)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모)	자산 총액	362,747	326,001	-10.13
	부채 총액	2,582	2,260	-12.47
	순자산 총액	360,165	323,741	-10.11
	기준 가격	1,008.15	1,037.70	2.93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A	기준 가격	998.96	1,026.21	2.73
클래스 C	기준 가격	994.94	1,020.91	2.61
클래스 C-P	기준 가격	995.89	1,021.99	2.62
클래스 S	기준 가격	1,001.43	1,029.10	2.76
클래스 C-W	기준 가격	1,014.78	1,045.78	3.05
클래스 C-E	기준 가격	999.81	1,027.05	2.72
클래스 A-E	기준 가격	1,012.77	1,042.23	2.91
클래스 C-Pe	기준 가격	1,011.43	1,038.98	2.72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좌수)×1000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2017.04.18~2017.07.17	최근 6개월 2017.01.18~2017.07.17	최근 9개월 2016.10.18~2017.07.17	최근 1년 2016.07.18~2017.07.17	최근 2년 2015.07.18~2017.07.17	최근 3년 2014.07.18~2017.07.17	최근 5년 2012.07.18~2017.07.17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2.93	4.07	4.45	4.51	4.59	10.70	31.35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9)	(-1.36)	(-2.53)	(-3.36)	(-4.85)	(0.81)	(13.81)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17.54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2.73	3.64	3.77	3.59	2.75	7.88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9)	(-1.79)	(-3.21)	(-4.28)	(-6.69)	(-2.01)	-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
클래스 C	2.61	3.41	3.45	3.16	1.90	6.50	23.76
(비교지수 대비 성과)	(-1.41)	(-2.02)	(-3.53)	(-4.71)	(-7.54)	(-3.39)	(6.22)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17.54
클래스 C-P	2.62	3.45	3.51	3.25	2.07	6.72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40)	(-1.98)	(-3.47)	(-4.62)	(-7.37)	(-3.17)	-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
클래스 S	2.76	3.73	3.93	3.82	3.28	8.85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6)	(-1.70)	(-3.05)	(-4.05)	(-6.16)	(-1.04)	-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
클래스 C-W	3.05	5.20	5.47	5.43	5.15	14.58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97)	(-0.23)	(-1.51)	(-2.44)	(-4.29)	(4.69)	-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
클래스 C-E	2.72	3.66	3.81	3.65	2.98	8.42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30)	(-1.77)	(-3.17)	(-4.22)	(-6.46)	(-1.47)	-
비교지수	4.02	5.43	6.98	7.87	9.44	9.89	-
클래스 A-E	2.91	4.06	4.50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1)	(-1.37)	(-2.48)	-	-	-	-
비교지수	4.02	5.43	6.98	-	-	-	-
클래스 C-Pe	2.72	3.66	3.90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30)	(-1.77)	(-3.08)	-	-	-	-
비교지수	4.02	5.43	6.98	-	-	-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200×27%]+[CD금리×73%]}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투자 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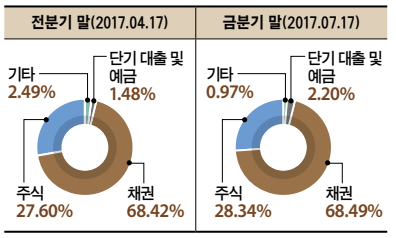
구분	주식	채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3,014	1,133	22	-5	4,164
금분기	9,191	831	26	-5	10,043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채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92,372	223,281	7,179	3,169	326,001
	(28.34)	(68.49)	(2.20)	(0.97)	(100.00)

• (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Comment!

최근 3개월 수익률 2.93%로 비교지수 수익률 하회

직전 분기까지 경기 민감 대형주에 국한되었던 상승세가 이번 분기 들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광받고 있는 종목보다는 소외된 중소형주에 집중해온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수익률은 비교지수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채권시장은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채권 금리가 박스권에 머물렀고,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듀레이션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나갔습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1. 주식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넥센	570,000	5,056	1.55	1.12
광주신세계	19,500	4,817	1.47	1.22
SK우	28,000	4,634	1.42	4.95
메리츠금융지주	285,000	4,403	1.35	-
SK	15,000	4,103	1.25	-
삼정펄프	56,500	2,596	0.79	2.26
농우바이오	160,000	2,496	0.76	1.12
한국제지	80,000	2,384	0.73	1.60
CJ우	24,500	2,141	0.65	1.08
동아에스텍	230,000	1,856	0.56	1.49
LG하우시스우	15,000	930	0.28	1.45

2. 채권

(단위: 백만 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750-2006(17-2)	9,400	9,416	2017.06.10	2020.06.10	-	RF	2.89
국고채이자0409-2012	6,500	6,110	2010.01.27	2020.12.10	-	RF	1.87
국고채이자04220-1906	5,500	5,332	2010.01.27	2019.06.10	-	RF	1.64
씨제이제일제당21-1	5,000	5,014	2016.02.26	2019.02.26	-	AA0	1.54

3. 단기 대출 및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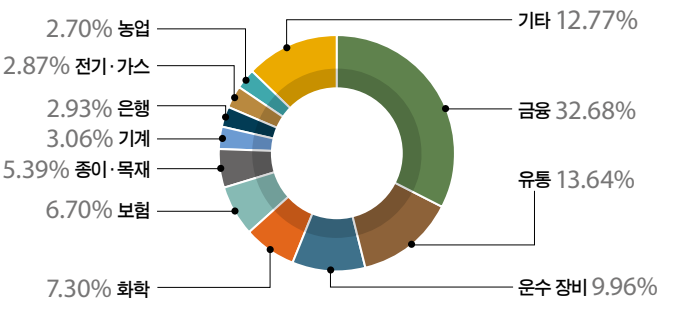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 일자	금액	금리	비고
콜론	경남은행	2017.07.17	6,056	1.21	2017.07.18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비고** (보유주 수÷총발행주 수)×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 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금융업 비중 늘고 서비스업 비중은 줄어, 회사채 비중 확대

이번 분기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금융업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직전 분기 3.50%였던 금융업 비중은 이번 분기 32.68%로 늘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채권 부문에서는 국고채와 통안채의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비중을 더욱 늘렸습니다.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이자 수익률이 좋은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매수를 지속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4.17) 금액	전분기 말(2017.04.17) 비율	금분기 말(2017.07.17) 금액	금분기 말(2017.07.17)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모)	자산운용회사		359.61	0.09	322.49	0.10
	판매회사	클래스 A	102.58	0.12	92.49	0.13
		클래스 C	457.89	0.22	388.24	0.22
		클래스 C-P	177.93	0.20	178.93	0.20
		클래스 S	1.44	0.06	1.26	0.06
		클래스 C-W	-	-	-	-
		클래스 C-E	1.80	0.11	1.50	0.11
		클래스 A-E	0.00	0.06	0.00	0.06
		클래스 C-Pe	0.00	0.10	0.02	0.1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28.39	0.01	25.46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3.25	0.00	11.88	0.00
	보수 합계		1,142.90	0.98	1,022.27	0.99
	기타 비용		6.65	0.00	6.4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10.75	0.00	11.10	0.00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3.92	0.01	24.62	0.01
		합계	34.67	0.01	35.72	0.01
	증권거래세		79.86	0.02	76.03	0.02

•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잔) 대비 비율.
• 보수 합계는 4대 보수의 단순 합계임(판매회사 보수는 전 클래스 보수가 합산됨). 클래스별 가입자는 가입 시 명시된 보수 합계에 따름.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전분기	0.00	0.04	0.04
	금분기	0.01	0.04	0.0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전분기	0.93	-	0.93
	금분기	0.93	-	0.93
클래스 C	전분기	1.33	-	1.33
	금분기	1.33	-	1.33
클래스 C-P	전분기	1.23	-	1.23
	금분기	1.23	-	1.23
클래스 S	전분기	0.68	-	0.68
	금분기	0.68	-	0.68
클래스 C-W	전분기	0.42	-	0.42
	금분기	0.42	-	0.42
클래스 C-E	전분기	0.88	-	0.88
	금분기	0.88	-	0.88
클래스 A-E	전분기	0.64	-	0.64
	금분기	0.66	-	0.66
클래스 C-Pe	전분기	0.81	-	0.81
	금분기	0.82	-	0.82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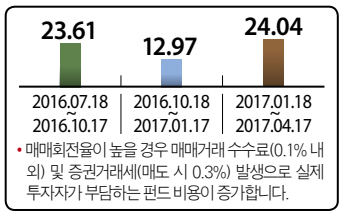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 기간	연 환산
190,343	8,316	782,591	25,351	26.19	105.04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 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 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 26.19%로 직전 분기보다 높아

이번 분기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매매회전율은 26.19%로 직전 분기 24.04%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식 매수 금액은 직전 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주식 매도 금액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외된 가치주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를 늘려가면서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안정적 투자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밸류 탐정의 펀드, 잘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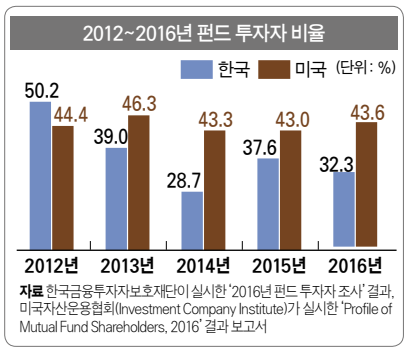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어떻게 다를까?

투자 목적과 기대수익률, 펀드 정보에 대한 관심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비교', '한국과 미국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공시 자료에 대한 의견'

1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비율 변화 추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응답자는 한국의 경우 32.3%, 미국의 경우 43.6%로 나타나 미국이 약 10%p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에는 펀드 투자 비율이 50%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가계의 약 45%가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16년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실시한 'Profile of Mutual Fund Shareholders, 2016' 결과 보고서

2 펀드 가입 유형과 투자자 연령 차이

한국은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과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비율보다는 일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한 비율이 퇴직연금 이외 개인적으로 투자한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펀드 투자자 연령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대체로 연령 구간별로 투자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펀드 투자자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펀드 가입 유형(중복 응답)

한국		미국	
일반 펀드	96%	퇴직연금(DC형)	81%
특정 펀드	71%	퇴직연금 외	63%

3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1순위는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 모두 '은퇴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31%, 미국은 74%로 한국 투자자보다 미국 투자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주로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해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중요시하는 펀드 정보

한국 투자자는 펀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로 50.1%가 '해당 펀드의 성과(수익률)'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펀드 정보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성과(수익률)가 22.4%, 펀드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가 16.2%였습니다. 한국 펀드 투자자들은 운용보고서 내용 중 관심 있는 항목 역시 수익률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운용 경과와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은 12.9%,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은 9.5%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펀드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순위는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그림으로 표현된 연간 총수익률, 투자 목적 순이었습니다.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실시한 'Investor View o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roposed Summary Prospectus' 결과 보고서(2008)]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자! 뉴스 스크랩북

뉴스에서 많이 본 말,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지난해 말 제정된 후 새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 공약으로 제시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란? ▶ 기관투자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위탁자의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처음 제정되었고,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화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화는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 삼성증권,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 증시 재평가의 이정표'

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 ▶ 그렇다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한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밝힌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❷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❸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❹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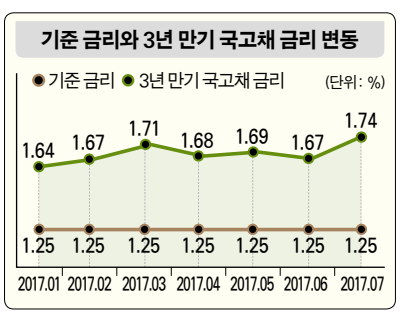
❺ 기관투자자는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한 지침·절차·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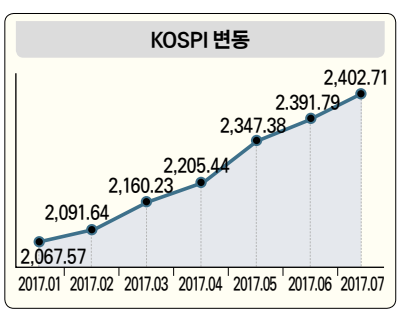
❻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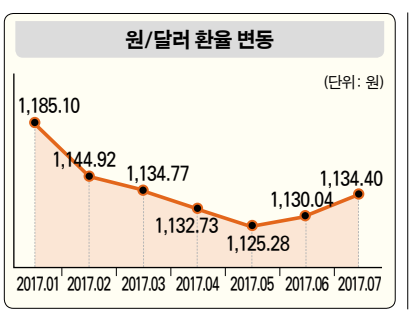
❼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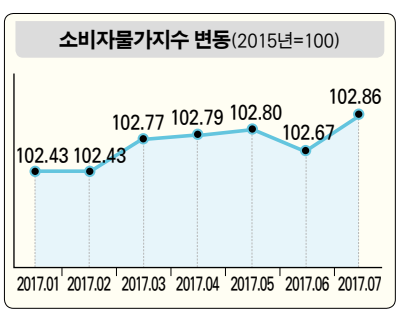
3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식시장 ▶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일본, 홍콩, 대만 등 1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식시장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 배당 확대 등 변화를 이끌어내어 고질적인 주식시장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7.01~2017.07)









• **자료** 한국은행(KOSPI-종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